



최락기 문화재단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동참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는 지난달 30일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최 대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전주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문화 인력 보충과 전승 인력 확충 관점에서라도 치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무주문화원-덕유산국립공원, 역사문화유산 순회사진전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무주문화원(원장 맹갑상)과 함께 무주의 역사문화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무주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무주 역사문화유산 순회사진전'을 합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덕유산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역인 무주의 전통문화를 다양한 시각자료로 소개하며, "동반원사 송병선의 무계국악 암각사 탁본" 및 조선시대 472년의 역사를 간직한 무주 적상산사고에서 300여 년간 보관된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행렬·포세 자연 사진' 등 총 40여 점의 무주의 역사적 기록과 유산을 한자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전시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덕유산국립공원 내 탐방안내소(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2)에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춘향제 기간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 운영

남원시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95회 춘향제 기간에 고향사랑기부채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한다.

춘향제에는 지난해 전국에서 100여 만명이 방문해 역대 최고인원 방문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예술축제인 만큼,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방문객에게 고향사랑기부의 의미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부스는 행사장 내 차없는 거리 일원에 설치되며, 기부채 안내 및 캡슐 뽑기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농협 남원시지부 및 남원시 관내 농협회에서 이벤트 증정품으로 고품질 남원쌀인 '춘향애인참미' 150만원 상당을 협찬하여, 이벤트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 기부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춘향애인참미' 1kg를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용문객잔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착한 나눔 정기 기부에 참여한 용문객잔(대표 하정연)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용문객잔은 착한가게 동참뿐만 아니라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영양 풍부한 밑반찬 지원사업"에 주기적으로 자장소스를 기부하고 있으며, 하정연 대표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업에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은주 운봉읍장은 착한가게 동참을 결정해주시는 하정연 대표에 감사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제와 함께 남원 지역 상생·협력

롯데백화점 전주점, '춘향제와 함께하는 ONE the NAMWON 백향과 Festival' 팝업스토어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오는 5월 6일까지 9층 옥상 공원에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춘향제와 함께하는 ONE the NAMWON 백향과 Festival'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전년 3월, 남원시와 '지역상생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에 이어 이번 행사에는 지역 특산물인 춘향제와 연계하여 한층 더 남원 지역 농특산물의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다.

본 행사에는 비즈앤즈, 포도청 와이너리, 카페 광한루, 아리당, 안터원목장 등 남원시 관내 10개 농식품 관련 로컬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 지역 내에서 생산된 백향과(파선프루트)를 중심으로 자체 식품 R&D를 통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인 남원 백향과 크림 초코 샌드와 백향과 크림 샌드위치



를 최초로 선보이고 크림찰떡, 요구르트, 수제맥주와 남원시 특산물도 이번 행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가정의 달에 맞춰 어린이 고객대상 페이스페인팅 이벤트와 백향과 캐릭터 '백향이'를 활용한 굿즈 마케팅과 함께 증강현실(AR)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게임 앱 '백향OO' 체험존이 마련되어 콘텐츠 연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의회, 정읍시 공동주택 정책 연구 포럼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공동주택 정책 연구 포럼'(대표 서향경)이 지난 28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읍시 공동주택 정책 연구 포럼"은 서향경 대표의원과의 정상회담, 오승현 의원이 참여하며, 11월까지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파악해 주거환경, 민원 등의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뜻을 모았으며,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였다.

서향경 대표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치유형 예술 연주회 개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하여, 자연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한 치유형 생태 인문 예술 연주회 '자연 안에서 삶을 품다'를 5월 7일 오후 2시부터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태체험과 인문학 강연, 음악 공연을 결합한 복합형 문화행사로, 일출 속 고립과 단절에 지친 탐방객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회복과 정서적 균형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에는 김정배 원광대학교 교수의 인문학 강연과,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활동하는 '인문 밴드 레이'의 퓨전국악 공연이 어우러져 '삶이 들려주는 시의 언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석고 방형제 만들기 체험을 통해 사색과 자연의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참여를 희망 하면 덕유산 탐방안내소(063-322-3173)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김진배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삶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탐방을 넘어, 치유와 사색, 감성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이 삶 속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합동소방훈련 실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전북대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는 지난달 28일 군산 임피현교 대성전에서 중요목조문화유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최근 경북과 대구, 강원지역뿐 아니라 도내 김제·정읍·고창 등지에서 잇따른 산불 발생에 따라 유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화유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 발생 시 급속히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군산소방서와 군산시청, 임피현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천차별 진행했다.

훈련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요령과 인명 대피 절차 숙지, 소방장비 운용, 물자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문화유산 내 설치된 소방 및 보호시설의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도 실시했다.

남해경 센터장은 "최근 빈번한 산불로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사태가 증가하면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는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 전북 서부권역 내 885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은행, '곰드래장애인협회 합동결혼식'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곰드래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와 함께 지난 30일 전주시 팔복동 소재 아름다운관벤치웨딩에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제24회 곰드래장애인협회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전북은행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 중인 장애인가정을 곰드래장애인협회 각 시·군지로부터 추천받아 합동결혼식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등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장애인 신랑·신부 11커플은 예복, 웨딩드레스, 메이 크업 등을 무료로 지원받아 하객 200여명의 축하 속에 합동결혼식을 올렸고, 제주도 일대로 2박 3일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올해로 11번째 지속적으로 합동결혼식에 참여해 장애인 약 100커플에게 더욱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은행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며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교육지원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30일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정읍시 환경교육센터와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의 일환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최용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호 정읍시 환경교육센터장이 참석해 환경교육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 지원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정읍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읍시 환경교육센터는 전문 강사양성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지역 특화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풍년농장, 도동동 취약계층에 계란 후원

남원시 도동동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관내 주)풍년농장(대표 이성만)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서며 도동동의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발품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매일 신선한 계란 20판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된 계란은 저소득 한부모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의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영양가득한 식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성만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농장이 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장례식장, 김제시에 이웃돕기 2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나눔 문화 실천이 이어지며 따뜻한 온기가 더해졌다.

시는 김제장례식장(대표 노재근)이 지난 30일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노재근 대표는 "2024년 2월에도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이번 성금 전달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에 지속적인 힘을 보탬다. 노 대표는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노재근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